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26년 3월 19일(목)

참석 위원	최은수 부위원장, 김광석, 이경화,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박세진, 임태순, 백명희, 안호림 (10인)
회사 참석 인원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1. 개회 및 인사

[최은수 부위원장]

전임 위원장님께서 좋은신 일로 소임을 마치게 되어 오늘은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로 참석하신 안호림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의견

[이경화 위원]

연중 기획 프로그램 '하모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미국인 부부 신동석·제시카 부부의 이야기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올라 씨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기획 의도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중간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주 햄버거 아가씨'로 불리는 제시카는 미국인 부부로서 제주 시장에서 한국 음식과 제주 간식, 비빔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라 씨 가족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결혼 과정과 둘째 아이 출산 이야기, 남편이 아내가 만들어 준 한국 반찬을 맛있어하는 모습 등 훈훈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즘 TV 방송에는 가정 문제와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자녀 비판, 부부 간 저급한 행동, 결혼에 대한 혐오감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하모니'는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 가족의 모습, 결혼 생활의 즐거움, 아이들이 주는 행복함이 느껴지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올라 씨가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해 가족과 3주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육아는 힘들다' 또는 '3주 동안 첫째 아이는 어떻게 될까'와 같은 걱정스러운 표현이 오고 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생기는 즐거움, 아빠와 첫째가 엄마 없는 사이에 더 돈독해지는 가족애를 표현하는 방향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기획 의도에 더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출산·결혼 기피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하모니'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이라면 출산을 '서프라이즈 기쁨'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그러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모니'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송국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제작을 합니다. 기획 의도는 다문화 가정을 보여줌으로써 문화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출산·결혼 기피 문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공존에 방점이 찍혀 있어 저출산이나 결혼 기피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저출산·결혼 기피 현상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TV나 보도 채널에서 시청자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결혼 기피 문제를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저도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제작했던 '소나무'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각자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모니'도 다국적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좌충우돌하면서 한국 문화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 그 자체로 흥미로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모든 프로그램이 저출산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특화된 콘텐츠가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고, 연합뉴스TV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석 위원]

뉴스 프리즘 '피지컬 AI 시대, 협력적 노사관계' 보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도래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시의적절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미국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대규모 언어 모델 '클로드' 3.5 버전이 성능 면에서 GPT-4.0을 능가하거나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직 노동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피지컬 AI와 인공지능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세계사적 흐름에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산업 현장에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동 인력의 고용 문제와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 인터뷰가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전 세계 AI 시장을 G2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피지컬 AI의 도래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입니다. 연합뉴스TV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 스페셜 417회 '벼랑 끝에 선 편의점 왕국'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편의점의 실상을 다룬 방송은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점포 수 확장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께서 편의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인정된다면 인건비 지원 등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본부장]

피지컬 AI 관련하여, 올해 현대자동차가 가전 전시회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한 이후 현대차 노조가 합의 없이 공장에 로봇을 도입할 수 없다는 발표를 계기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노사 간, 또는 노사정 간에 대응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편의점 스페셜의 경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편의점 수익 관련 통계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창업 업종 중 편의점이 치킨집보다 많을 정도로 친숙한 소재이다 보니 시청률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순 위원]

이번에는 담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소요되나, 중동 사태 발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정유사들이 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소비자 신뢰

를 저버리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겼고,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질러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기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 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은 기업의 운송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 유가 상승이 반영되기 전에 가격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행태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밀가루·설탕 등 식료품부터 생필품, 기름값, 우유까지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불공정 담합 행위를 중대 범죄로 여기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과징금 제도의 제재 기능을 강화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최저치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간 1회 이상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합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며,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기업들에게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알리고, 담합 시도가 어려운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고 가격제, 서울 정산제 등이 매일 언론에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리포트는 3월 6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담합 행위는 민주적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당국도 당연히 담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면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최근 전쟁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 경제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합뉴스TV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배럴당 96달러를 기준으로 2% 성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00달러로 가게 되면 환율 상승, 고금리, 고물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빵값이 두세 배 오르면서 생활 경제에 충격이 컸던 사례처럼, 이러한 감시 기능이 연합뉴스TV에서 강화되면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병수 위원]

뉴스 프리즘 '피지컬 AI 시대, 협력적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서 김광석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지컬 AI 도입의 필요성, 산업 현장 활용 사례, 일자리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협력적 노사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잘 짚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목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AI로 대체되는 인력에 대한 직무 재교육을 통한 인력 재배치,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고용이 아닌 창업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고 개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한 대도 로봇을 늘릴 수 없다'는 발표가 향후 노사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한 번 더 심층 제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피지컬 AI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저희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취재해야 할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공부하고 기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석 위원]

요즘 저작권 관련 토론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와 제작자 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프 아웃' 제도의 경우, 제작자가 명시적으로 제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AI 학습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산업 문제이자 제작자와 AI, 나아가 노동자 전체와 연결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연합뉴스TV에서 'AI와 일자리'라는 테마를 지속적으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2030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인데, 아틀라스 로봇의 도입 비용이 1인당 약 1,400만 원 수준이라면 일자리가 완전히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하면 자동차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국민 생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달라스~휴스턴 구간 357km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인허가를 받아 5개월간 운영한 결과, 교통법규 준수, 정시 도착, 사고 감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에 인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연합뉴스TV에서 'AI와 일자리' 테마로 다루어주

면 좋겠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을 예로 들면, 수공업 근로자들이 기계에 반발했으나 결국 기계와 인간이 타협하며 새로운 산업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컴퓨터 등장 시에도 사무직 근로자 해고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인재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기술의 등장과 인간이 어떻게 협력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것인가, 그런 측면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서연 위원]

첫 번째로 '무간다'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제는 '아들 사망 뒤 드러난 생명보험, 새마을금고의 배신'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유가족의 원통함을 대변하는 데는 충실했으나, 언론의 시각이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과실로 피보험자를 A가 아닌 B, 즉 미성년 아들로 잘못 기재하여 보험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해 부모님의 감정적인 인터뷰와 호소에 보도 비중이 치우치다 보니, 새마을금고의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사후 처신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흐려졌습니다. 단순히 당사자의 하소연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보도에 머물기보다 보험 체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썬속 뉴스' 중 '흥위 오빠 지켜줄게' 관련 단종 관련 뉴스와 '역사의 현장을 파고들다', '2년 만에 천만 영화 탄생'과 같은 썬속 뉴스 두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왕의 남자' 흥행 보도는 인지 세대의 역사 소비 방식인 디지털 성지 순례와 단종 신드롬을 결합하여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였고, 지도 앱 리뷰를 활용한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천만 영화의 흥행 역사를 되짚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OTT 플랫폼 강세와 최근 극장 관객 감소 상황에서도 다시 극장으로 이끈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도본부장]

'무간다' 보도 관련하여, 오늘 아침 다시 살펴보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머니의 입장이 많이 담긴 것은 사실입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청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당 기자는 현재 이란 사태 특파원으로 현지에 나가 있어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자가 쓴 답변을 보면 후속 취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남자' 관련 썬속 뉴스는 요즘 최고의 화제 중 하나로,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제작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희 위원]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3월 6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시다만, 이미 상황 변동이 많습니다. 3월 6일 기준으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된 지 10여 일이 되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색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2개월 동안 이란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전쟁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현 상황을 잘 압축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3월 9일 현재 하메네이의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고, 선출 직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연합뉴스TV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란 사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계엄 이후 가장 큰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취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카이로와 오만에도 특파원을 파견하여 현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간다'를 취재했던 박현우 기자는 예루살렘 현지 취재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전 상황이 너무 위험하여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국내 시청자들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번에 두 개 콘텐츠가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루신 내용과 겹쳐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이경화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딱딱한 뉴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부드러운 콘텐츠가 연합뉴스TV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썬속 뉴스의 경우 AI 더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AI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임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부위원장님의 조언이 반영되어 매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 제작 기법에서도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현장의 재구성'은 나레이션만으로 지루하지 않게 정보를 잘 전달하였고, 보도 전문 채널로서 신뢰도 높은 정보성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가 주로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데 업로드 주기가 불규칙하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건씩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연속성, 충성도,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정기적인 업로드 주기가 중요합니다. 주기의 길고 짧음보다 일정한 패턴으로 업로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도본부장]

AI 더빙과 관련하여 점차 스킬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재구성'은 현재 주 2회 제작하고 있는데, 저는 주 3회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으나 제작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화요일·목요일 주 2회는 지키고, 가능하면 주 3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썬속 뉴스'와 '현장의 재구성' 모두 볼거리가 있는 좋은 콘텐츠입니다. 기획과 제작의 역할을 나누는 방식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기자 지망생 인턴을 활용하여 위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픽과 영상 편집을 맡기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의 재구성'에 활용된 보도 자료 텍스트 30개 정도를 AI에게 학습시킨 후 'A·B·C·D 기사를 합쳐 현장 재구성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완성된 구성안이 나오고 그에 맞게 편집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AI 활용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뉴스 AI 서비스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패션 종사자는 패션 뉴스만, AI 관심자는 AI 뉴스만 골라서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 시대로 뉴스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순 위원]

3월 1일 '와이드 08 10명 중 6명, 육일기 규제 찬성' 입법 상황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당 보도는 공공장소에서의 육일기 노출 문제, 국민 여론, 관련 입법 논의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육일기 노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육일기 규제 문제는 역사적 인식, 표현의 자유, 외교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보도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다루어 주시면 더욱 균형 잡힌 보도가 될 것입니다.

첫째, 해외 사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제국주의 상징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실제 법적 근거와 적용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 비교 관점에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가, 역사학자, 시민단체 등의 견해를 폭넓게 소개하면 공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입법 논의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을 균형 있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공신력 있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 보도는 3.1절 기획 기사로 제작한 콘텐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 후속 조치 사항을 파악하여 한 번 더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시청자위원회가 갈수록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 선정과 인사이트까지 마치 시험 준비를 위한 스터디 그룹처럼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요 안건으로 위원장 선임 건이 남아 있습니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최은수 부위원장]

전임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후임 위원장 선임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석 위원]

모든 조직의 관례상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승계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므로, 현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박세진 위원]

저도 동의 합니다.

[기타 위원 들]

동의 합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로 제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했으면 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서연 위원]

김광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기타 위원 들]

동의합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김광석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광석 위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폐회

[최은수 부위원장]

이상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